

# 도시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rban Archives of Building Direction

여진원 (Jin-Won Yeo)\*

장우권 (Woo-Kwon Chang)\*\*

### 목 차

- |                    |                  |
|--------------------|------------------|
| 1. 서론              | 3. 도시아카이브 현황과 분석 |
| 2. 도시와 아카이브에 관한 고찰 | 3.1 조사대상과 방법     |
| 2.1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성   | 3.2 조사내용과 분석     |
| 2.2 도시아카이브 개요      | 3.3 분석결과         |
| 2.3 도시아카이브의 필요성    | 4. 도시아카이브의 구축 방향 |
| 2.4 선행 연구          | 5. 결론            |

### 초 록

도시고유의 역사가 기록되고 그 안에서 오늘의 역사 또한 살아 숨 쉬는 것이 보일 때 도시는 그 고유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 연구는 도시아카이브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의 특성과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도시아카이브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아카이브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도시 중 서울, 부산, 원주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 문헌과 웹페이지 내용분석을 토대로 도시아카이브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As the indigenous history of the city gets recorded and today's history is lively reflected as it draws breath, the city will have its own symbolic images. This study is to show the new city archives of building direction by the status survey and analysis of the city archives based on theoretical study in respect of the comprehens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and the need to archive. To this end, the city of Seoul, Busan, and Wonju, was surveyed and were given the suggestion it should efficiently build its city archive based on the results of its analysis.

키워드: 도시, 아카이브, 도시정체성, 도시이미지, 도시브랜드, 도시아카이브

City, Archive, City Identity, City Image, City Brand, Urban Archives

\*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수료(yeopo\_81@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3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5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15-335,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315>]

## 1. 서론

인간의 삶은 이동과 정착 속에서 이루어 왔다.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을 만든다(Mark Girouard 1985: 민유기 역 2009).” 이것은 도시가 처음에는 경제 발전 등 인간의 욕망에 의해 건설됐지만, 이후 거꾸로 도시가 인간 삶의 양식과 문화를 규정시켰다는 이야기다(정달식 2009, 14).

도시를 아무 고민 없이 규격폼처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도시가 인간의 삶과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시대의 유산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상속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테오도르 폴 김 61, 128).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도시민의 삶의 행위를 잘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도시는 건설이 아닌 역사의 경험으로 만들어져 현재의 삶이 과거와 비교되고 검증되어 평가되는 장소다(테오도르 폴 김 2009, 130). 즉 도시고유의 역사가 기록되고 그 안에서 오늘의 역사 또한 살아 숨 쉬는 것이 보일 때 도시는 그 고유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안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미흡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도시 내 자원들의 발굴과 활용을 통하여 우리는 그 도시의 경제·문화·사회 등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각 자원들의 연계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아카이브화(化)를 통해 지금보다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도시와 관련된 시민들의

기억과 경험 등을 보존함으로써 사라져가는 도시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수집·관리한 도시 내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하여 도시의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아카이브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의 특성과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도시아카이브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아카이브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도시와 아카이브에 관한 고찰

### 2.1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성

아카이브(Archives)란 후세의 이용 가치를 위해 보존하는 기록물의 총체 혹은 그러한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아카이브의 개념은 연구자들에게조차도 일상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상 현대사회는 기록물의 의해 구축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록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지탱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유광흠 외 2009, 10).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기록물에는 문화적, 역사적,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닌 분야에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로 선택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보존자료의 선별과 평가 그리고 보존하는 것을 책임지고, 보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행위나 작업의 일정을 의미하기도 하며, 기록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나 부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아카이브는 기록자체, 행위나 기관 혹은 건물과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또한 아카이브의 종류와 특성은 크게 시대적 측면, 내용적 측면, 형태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이희재 2004, 237-239).

첫째, 시대적 측면이다. 시대적 구분은 크게 고대, 중세, 근세, 현대(또는 당대)로 나누고 그 안에서 적절한 시대별, 지역별의 세분화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는 역사의 출현 이래 삼국시대까지, 중세는 통일신라와 고려 왕조, 그리고 근세는 조선왕조, 현대는 1910~1945년 일본의 침략시대와 1945년 광복절 이후를 차별화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내용적 측면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 개인과 기관으로 나눈 후 각 종류별로 세분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매우 다양한 분야의 보다 많은 개인 아카이브의 가능성을 예측케 하고 있다.

셋째, 형태적 측면이다.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 기록 매체로 하는 문자 형태이다. 이는 문자, 숫자, 부호 등으로 쓰인 기록물로서 필사, 인쇄 또는 전자출판으로 생산된 도서나 문서를 말한다. 또 오랜 역사를 두고 쌓여왔거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제작된 지도형태의 기록물과 그림, 사진, 삽화 등 이미지형태의 기록물, 마지막으로 유무선의 전화와 라디오가 발명되면서 출발한 음향형태(archives sonores)의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건 기록물의 관리는 기록물 생산 시점에서의 사회적 경험을 후세에 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효용성은 후세에 기록물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유광흠 외 2009, 11).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Cox(1996)는 지역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실시할 때의 지역성(locality)을 강조하며 지역성을 커뮤니티와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록화(documenting)하는 방법에는 '전통적 접근'과 '실용적 접근'이 있다고 보았다. 잠재적 가치보다 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민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기존의 전통적 접근은 지역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의 비중이 지배적이다. Cox는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그 과거와 현재를 통해 중요시되는 지점을 포착하는 실용적 접근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시아카이브를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해당도시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 혹은 개성을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도시 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2 도시아카이브 개요

### 2.2.1 도시정체성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공간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 간 공유된 존재 의미나 의식, 즉 '정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안정되게 하지만, 정체성의 상실은 개인화된 삶 속에서 인간의 고립감 또는 소외감을 초

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특정 도시나 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은 해당 도시나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09, 189).

‘정체성(identity)’은 국어사전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한다. 정체성은 동일성(sameness)과 개별성(individuality, oneness)을 나타낸다. 동일성은 변화에 대한 연속성 및 동일화라는 국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성은 특이성과 수월성이라는 국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동일성(연속성과 동일화성향)과 개별성(특이성과 수월성)을 정체성의 ‘내용’이라고 볼 때, 도시정체성을 촉발하고 형성하는 기제는 ‘자의식(自意識)’이다(계기석 외 2001, 3-4; 손장원 2007, 14-15; 이석환 2001, 520). 따라서 도시 정체성에 대한 기본조건은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도시정체성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무언가가 이 도시에는 있다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그 도시안의 지역성이라 말할 수 있으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신 또한 도시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어떤 도시를 그 도시가 갖는 도시환경과 도시의 동일화를 나타내는 동일성, 도시와 다른 도시의 관계를 말하는 개별성과 특이성,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우월성을 들 수 있고, 이를 정체성의 요소라 하며, 이러한 정체성요소들이 강한 이미지들을 각인시키므로 그 도시 고유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박선미 2010, 5).

따라서 도시정체성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 도시의 자기다움, 즉 도시 내적 시각에서는 도시의 ‘동일성’, 그리고 외적 시각에서는 도시의 ‘개별성’ 내지 ‘차별성’이다. 이러한 도시 정체성은 도시의 역사,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Kevin Lynch(1960)는 그의 저서 “The Image of City”에서 도시정체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측면이 아니고 개성이라든가 단일성의 의미의 측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다분히 도시 외적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또 십촌명(辻村明)(1988)은 “도시의 개성과 문화” 중에서 “도시의 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표 1> 도시 정체성의 조건(이석환 2001, 520)

구분	주요 내용	
동일성	연속성	한 지역이 그 지역답다는 것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인가에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동일화	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혹은 시민으로서의 집단은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진다. 또는 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시민들은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
개별성	특이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수월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면서 무언가 뛰어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또는 다른 지역에도 있는 공동요소(예: 도로)를 비교해 볼 때 더 낫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고유한 요소가 있되, 질적으로 양호하다.

는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내야 하며 도시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가 육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도시와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도시의 얼굴이 되고 개성이 된다. 바로 여기에서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개성창출에 있어서 얼굴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계기석 외 2001, 4). 또한 정체성은 여러 분야에서 발현될 수 있다.

도시문화산업과 문화도시는 그 도시가 가진 자원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그 도시의 이미지와 그로부터 정책적으로 추구되는 특성화 전략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도시의 정체성 정립은 해당도시의 역사, 문화, 경관, 사업 등과 같이 지역에 토착적이며 지역주민의 수요와 부합되는 분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도시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의도적 노력을 계속하되, 그 지역이 갖는 문화적 유산, 공간, 산업적 특징, 주기적 의례 등 다방면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이미지를 안정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계기석 외 2001, 24; 유문무 2004, 3). 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분야와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따라서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가 가지는 고유의 사회적·공간적인 맥락에서 탄생한다. 도시 정체성의 확립은 곧 도시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의 성격을 밝히고 도시의 개성을 나타내는 데에 도시이미지의

역할이 필요하다.

### 2.2.2 도시이미지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비추어진 모습으로,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느낌의 총체이며, 어떤 지역이나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그곳에 대한 개개인의 마음의 생각으로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점, 경험에 따라 각인되므로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다(윤옥경 2011, 726).

도시를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보자는 것은 이제 일종의 슬로건이 되었다.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자는 운동은 한 도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강렬한 추구로 이어지고 있다(유문무 2004, 4).

도시이미지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지역의 물리적 환경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Lynch 1960). 이것은 도시와 관련지어 형성된 각 개개인이 이미지가 겹쳐진 결과로서 하나의 공적 이미지(public image)로 나타난다. 이는 사람 각자마다 개별적인 도시이미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개별적인 이미지가 모여 총체적인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김한선 2008, 24).

<표 2> 도시정체성의 분야와 내용(유문무 2004, 3)

분야	내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의 현장, 역사적 인물, 유적
문화정체성	민속, 축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정체성	관광, 첨단산업, 수공업, 농산물, 제3차 산업

또한 도시이미지 형성은 크게 자연 요소와 물리적 요소, 비 물리적 요소로 구성된다. 자연요소는 자연 환경, 물리적 요소는 건축물과 도시외관, 상징물 등의 인공물, 비물리적 요소는 시민의 가치관과 도시의 역사성, 문화 등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도시이미지에 있어서 도시이미지 유형 자체가 몇 가지로 구분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시이미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바로 이념적 상징으로서 도시이미지와 물리적 실체로서 도시 이미지이다(권재경, 최원수 2012, 18). 이를 유형별로 구성요인과 구성요소를 나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처럼 도시이미지는 그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이나 인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시이미지의 다양한 전략들이 세워지고 도시 브랜드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용된다.

### 2.2.3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핵심 목표대상에 대해 차별적이고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도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과정을 의미한다. 즉 커뮤니케

이션 과정 속에서 도시브랜드는 단순히 로고, 심볼, 슬로건이 아닌 도시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도구이다. 도시의 핵심가치는 도시브랜드라는 전략적 도구를 통해 하나의 전략적 메시지로써 수용자들에게 전달 및 공유된다(권용우 외 2012, 117).

도시브랜드의 역할과 기능은 도시가 가지는 다양한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타 도시와 구별되며, 지자체가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함축되어있는 종합적인 상징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기능과 도시의 이미지에 의해 브랜드의 가치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가시적으로 창출하는 정체성이 중요하다. 정체성이 없는 도시 브랜드는 방문자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진다. 이것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물질적인 영향보다는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질적인 영향과 정신적인 영향 모두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 도시를 기억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

<표 3> 도시이미지의 유형과 구성요인(권재경, 최원수 2012, 18)

도시이미지유형	구성요인	구성요소
실체적 이미지	도시시설, 건축물	기념물, 박물관, 교통시설, 기반시설, 랜드마크 등
	자연환경	해변, 바다, 기후, 소음 등
	도시공간, 장소	광장, 활동/거주 공간, 지역, 건축물, 특정 공간 등
	도시환경	연속경관, 산업 구조, 스카이라인, 공간질서 등
상징적 이미지	역사성	전통, 관습, 역사적 맥락, 시간적 연속성
	도시생활 기반	즐거움, 물가, 범죄, 친절성, 라이프스타일
	도시기능	위치, 크기, 도시팽창, 상징성
	외적이미지	활력, 쾌적, 밝음, 안전

〈표 4〉 도시브랜드 관점과 기능(권용우 2012, 118)

도시 브랜드 관점	도시브랜드의 기능
표식	도시 내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공간을 대표하는 러브마크
시각적 상징	도시의 정체성을 전달·공유하는 시각적 상징 도구
조직관리	도시의 이미지, 문화 등을 활용한 브랜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기억의 단서	도시의 질적 정보에 대한 연상 창출 및 선택 촉진
위험감소자	도시브랜드의 수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기대 제공
정체성 체계	도시의 복합적 성격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 정립
이미지	긍정적·차별적 이미지의 지속적인 피드백에 의한 도시활동 자극
가치체계	거주자와 방문객 등 도시활동 주체들이 추구하는 가치 규명 및 창출
개성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도시의 개성을 반영한 상징적 차별화
관계	도시활동 주체들과의 관계구축 수단
부가가치	도시의 잠재적 속성을 극대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진화하는 실체	도시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도시브랜드의 성장과 진화

떠한 의미로 수용자인 시민들에게 또는 방문자들에게 전달되는가가 도시의 이미지 전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최영조, 남용현 2012, 397). 또한 도시브랜드 관점에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 2.3 도시아카이브의 필요성

도시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사상, 의식, 관습, 정통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공공건물과 개인건물, 두드러진 형태나 평범한 형태, 꼭 차거나 빈 곳 등의 공간들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답게 형성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장소에는 각 건축물들이 서로 같은 감각의 맥락을 형성하여 각 건물과 장소마다 삶의 모습, 기억, 감정들이 융해되어 나타나야 한다(테오도르 폴 김 2009, 3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발현하여 도시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도시브랜드로 잇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

게 만드는 도시를 잘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잘 보관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도시아카이브의 역할은 도시정체성 확립에서부터 도시 이미지 형성, 도시브랜드 창출까지 모두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늘날 도시아카이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역사의 복원과 보존이다. 인류의 역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시대마다 다른 문화를 이루게 했던 인간의 사상과 이론은 항상 문화유산을 도시에 남겼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각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유적에 감춰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도시에서 자료, 증거, 흔적들을 찾아 분석하고 연구했다.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역사를 정확히 알기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옛 도시의 시대적 배경, 환경, 사회적 요인 등을 이해해야만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테오도르 폴 김 2009,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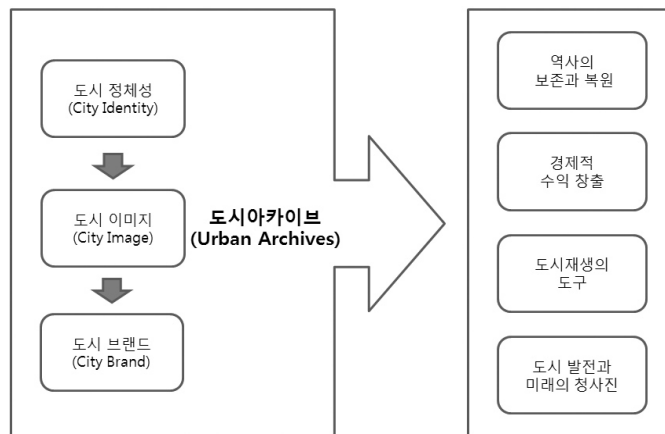
둘째, 도시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다. 최근 도시경제의 부진과 재정난 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

어나고,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차별화된 도시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도시브랜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도시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영역을 기록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멋진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들은 이미 이러한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이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부(富)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시 말해 도시아카이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지역 문화의 가치를 식별하고, 다른 지역이나 지역 문화를 구별하도록 의도된 기호 등의 상징 체계, 즉 도시의 신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나는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의 노후쇠퇴로 발생하는 도심공동화(都市空洞化) 현상이 일어나고 도시경제가 침체의 이유로 도시경제를 활

성화시키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도시에서 도시재생(都市再生)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아카이브는 도시를 기록화하면서 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쾌적한 환경을 창출함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발의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넷째, 도시 발전과 미래도시 계획에 대한 청사진 제시다. 도시정체성의 중요성이 지적되는 배경은 각각의 도시와 지역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계획이나 디자인 단계에서 소홀히 되어 획일적이고 매력 없는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왔던데에 있다. 이것은 도시의 계획과 디자인이 본래 살아있는 것으로서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나 형태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과 생태계를 기초로 한 총체적인 환경체로서 창출되어야 할 도시공간의 질적 측면이 그다지 배려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한다(계기석 외 2001, 4). 이에 도시아카이브를 통해 활용사업을 미리 점검하고, 미래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도시아카이브의 구조와 필요성



## 2.4 선행 연구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석환(2001)은 '부산의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한 도시 안에 저마다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여타의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듯이, 부산이라는 도시 안의 각 지역사회들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에 해당하는 그 지역사회 다움(Comunitiness)을 지니고 있어야 부산이 바람직하고 경쟁력있는 부산성(Busan-ness)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계기석 외(2001)는 도시정체성(Urban Identity) 측면에서 우리 도시의 문제를 다루고 도시정체성 확립유형과 전략을 토대로 국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문무(2004)는 국내외 도시정체성 정립실태를 기반으로 인천의 도시 정체성 정립전략을 제시하였다.

김한선(2008)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 관광요소와 도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관광상품과 매력물에 대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선미(2010)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세계의 유명 도시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글로벌 정체성을 담아내는 강력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확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며 세계적인 도시 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설문원(2010)은 자치시대에 지방의 기록관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도큐메네팅션 전략 프로젝트 사례를 제시하고 지역 기록화를 위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윤옥경(2011)은 '메티시티 대구'를 사례로 도시브랜드 개발을 통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경관과 이벤트 활성화를 분석한 결과 다른 도시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권재경, 최원수(2012)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의 차별적인 경쟁우위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Hayden(1988)은 도시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의 의미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역사, 특히 에스닉 커뮤니티의 공간적 문화유산에 주목하여,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하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도시건축공간의 역사와 관련되어 소외받아왔던 노동, 여성, 에스닉 커뮤니티(ethnic community)의 공간적 문화유산에 커뮤니티 모두를 도시 전체의 유산으로 확대시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도시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를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아카이브를 도시 정체성, 도시이미지, 도시브랜드 측면에서 살펴보고 사례로 제시된 도시들의 아카이브 프로세스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아카이브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 3. 도시아카이브 현황과 분석

### 3.1 조사대상과 방법

국내의 도시아카이브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도시를 선택하였다. 도시의 선택기준은 도시의 역사성, 정체성, 지역성,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선택하였고, 특정한 사례로 지역성 측면에서 강원도 내륙에서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원주시를 추가하였다.

이들 도시들의 공통점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내·외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많은 도시의 기록들이 도시경제와 도시공간 측면에서 손실 또는 훼손, 변형되거나 새로운 기록들이 등장하여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사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구축되어진 도시아카이브의 웹페이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아카이브 조사는 추진과정과 내용에서 도시정체성, 도시이미지, 도시브랜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조사분석의 틀은 역사와 산업화, 도시아카이브로 구성되었다.

### 3.2 조사내용과 분석

#### 3.2.1 서울시 아카이브

##### (1) 역사와 산업화

서울은 한반도의 서쪽 중심부에 위치하며, 선사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으로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왔으며, 일찍이 백제와 조선의 도읍지로 각각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많은 유물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 초고층 빌딩, IT산업단지 등 최첨단을 달리는 도심 한복판에 경복궁, 덕수궁, 남대문 등 고즈넉한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다.

서울 곳곳에는 역사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1960년대 공업화를 주도했고 그 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정부의 분산전략에 의해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1975년 국내 제조업 고용의 34%를 차지했지만 1990년에는 22%로 감소하였다. 산업구조는 지난 20년 동안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1975년 섬유 제조가 최고의 공업이었으나 1980년 이래 의류산업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한국전자기계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의류산업의 국내의류 산업에 대한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58% 수준이며, 현재 총제조업 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서울특별시청 2013).

##### (2) 도시아카이브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아카이브의 특징은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를 동시에 구축하는 '도시갤러리'이다.

##### ① 추진과정

서울시 도시갤러리는 앙리 르페르브의 경구 '도시가 작품이다(city as oeuvre)'를 슬로건으로 한 도시자체가 작품이 되는 창의도시, 문화도시를 꿈꾸고 그리는 서울이다. 이것은 서울시공공예술 정책 프로젝트로서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83개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주제별 분류 테마는 4가지로 '서울다운 장소 만들기',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 '참여하는 문화시정 만들기', '뼈대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이다.

② 내용

서울 도시갤러리는 서울의 도시 매력을 증진시키고자 시작한 '디자인 서울'의 여러 정책 중 하나이다. 사업의 추진 목적은 창의적인 공공예술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해 서울다운 멋과 이야기(徐事)를 만듦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향유와 자긍심을 전하고, 국내외 길손들에게는 서울다운 체험을 선사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큐레이터의 말이며, 프로젝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다.

“도시갤러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그 성격과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서울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장소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나, 시민과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가의 투입으로 커뮤니티에 필요한 문화적 자원을 개발하는 공동체 미술 작업, 도시의 기반 시설물에 미술이 개입하여 일상의 환경을 심미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업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소자원 활성화 방안이란, 역사적인 의미가 있거나 경관이 빼어나거나 생태적인 특징을 지닌 장소를 발굴하여 그 장소가 지닌 잠재력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예술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장소를 특화시키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여 지역주민에게도 긍지를 심어줄 수 있고, 개성있는 서울의 표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지 도시갤러리팀의 큐레이터 인터뷰 중- <<http://blog.naver.com/s6604/30091343572>>)

③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웹페이지에는 연도별(2007~2012), 지역별(구별), 참여유형(참여와 비참여), 존치여부(영구작, 일시작) 등으로 나누어 도시 내 작품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자 또는 작가와 인터뷰, 소책자, 제안요청서, 도록 등을 참조하여 개별 작품의 기획목적과 진행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작품심층리서치'도 담겨있다. 또한 테마별로 학교갤러리, 남산 소월 예술길, 하늘공원 예술길, 덕수궁-정동 예술길, 마음동행



〈그림 2〉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http://www.citygalleryproject.org/>)

예술길, 삼청동-인사동 예술길, 서울 숲 예술길 등 7가지의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 (3) 분석

서울시는 공공예술을 통해 시민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장소와 경관자원을 개발 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시민들에게 무료한 일상 속에서 즐거운 탈출이 가능한 예술 공간 조성으로 도시의 활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갤러리가 보다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도시아카이브 측면에서 인근의 문화유산(기록물, 건축, 경관, 장소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웹페이지도 별도로 운영되는 것 보다 서울시, 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웹기반 통합도시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3.2.2 부산시 아카이브

### (1) 역사와 산업화

부산은 1876년 개항 이래 일제 강점기에 근대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1945년 해방 후에는 귀환동포의 귀국, 1950년 한국 전쟁 기간 중의 피난민의 급증으로 준비 없이 도시가 팽창하였다.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도시로서 성장하면서 지금의 도시적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 내의 산업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기능의 변화가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산업화시대에 건설되었던 주택과 건물들이 노후화하고 질 높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시가

지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부산도시기록 2013).

### (2) 도시아카이브

부산시가 추진한 도시아카이브의 특징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정비사업 도시기록화'가 사진 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① 추진과정

부산은 개항 이래 도시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과거의 흔적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왔다. 100년이 넘는 도시의 역사이지만 숨겨진 변화 속에서 과거의 모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부산시는 이러한 자각과 반성 속에서 지금도 계속 변모하고 있는 부산의 도시모습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도시 정비과에서는 2008년부터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협력하여 부산의 도시모습에 대한 체계적인 사진자료를 기록하기로 하고, 향후 매 5년에 한 번씩 그 변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정비사업 도시기록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 ② 내용

이 기록화 프로젝트를 위해 건축 및 도시전공 교수 4인, 건축가 1인, 문화기획자 1인, 사진작가 2명으로 구성된 <부산도시기록화팀, ABCD> (Agents for Busan City Document)이 구성되어 2008년 7월부터 기록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것은 사진기록을 중심으로 부산의 도시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부산의 구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부산의 삶', 도시공

간에서 마주치는 일상적인 풍경을 담은 '부산데 자부', 부산시가 기획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에 주목한 '부산의 꿈' 등의 범주로 나누어 기록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산의 기억'이라는 테마로 정리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산의 옛 사진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③ 사진으로 보는 부산도시기록

도시기록화 작업은 잃어버린 과거의 모습을 수집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기록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앞서 확보해 놓는 작업이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모습을 결코 보여주지 않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깝게 접근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에 수록된 사진 자료는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로 급변하는 부산의 도시모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자료로

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첫째,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화하여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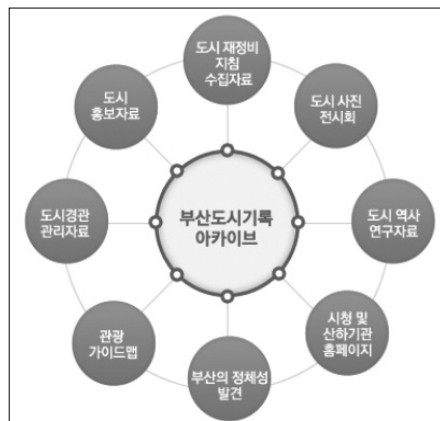
둘째, 부산의 도시역사 및 건축 역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셋째, 도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입안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주요행사 등을 대비하여 부산의 대내외 도시 이미지 홍보자료를 확보한다.

(3) 분석

부산의 실제적 이미지인 자연환경과 도시의 장소, 시설 등의 경관을 사진이라는 기록매체를 통해서 구축해 놓았다. 또 사진으로 보는 부산도시기록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원본은 고해상도의 디지털 파일이며 부산시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고해상도의 디지털 이미지는 공공적 이용의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유료로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정, 학술,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에 있어 아카이브의 차후 활



<그림 3> 부산도시기록 아카이브(<http://abcd.busan.go.kr/introduce/introduce.vm>)

용을 가능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진기록화 작업에서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변화를 시대별로, 변천의 순서대로, 변화의 요인설명과 함께 지역별로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또한 부산시, 부산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한 웹기반 통합 부산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3.2.3 원주시 아카이브

#### (1) 역사와 산업화

원주시는 강원도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서 1955년 9월 원주읍은 판부면 단구리·행구리 및 호저면 우산리를 편입하여 원주시로 승격되고, 원주군은 원성군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하여 지금의 원주시가 되었다.

원주시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대단위 산업단지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 제품인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첨단의료기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원주시청 2013).

#### (2) 도시아카이브

원주시가 추진한 도시아카이브의 특징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원주24도시기록프로젝트'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사진기록작업으로 이루어졌다.

#### ① 추진과정

'원주24도시기록프로젝트'는 2009년 5월, 원주의 24시간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원주, 길을

건다"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기록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2009년 11월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라는 사진단체로 창립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 ② 내용

'원주24도시기록프로젝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재생되는 개발과정에서 사라지는 도시의 풍경과 삶의 일상들을 진정성 있게 기록해 가치 있는 지역의 기록유산으로 남기고자 진행되고 있는 원주민의 도시기억 재생 프로젝트이다.

도시기록프로젝트는 오리엔테이션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록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선정결과 원동지구, 정지뜰, 대명원, 중앙시장을 2010년 기록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에는 30여명의 시민 생활사진가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식으로 도시를 기록했다. 매일 도시기록 사진워크숍과 사진 강좌를 통해 작업 진행상황과 촬영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지에 겹겹이 쌓여있는 삶의 지층을 사진이라는 시각적 언어로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다.

'2010 도시기록프로젝트'는 촬영대상지별로 5~6명의 팀으로 구성하여 대상지별로 지역별 역사성과 특수성, 건축물의 성격, 길, 전경과 야경, 사람 등 촬영 컨셉을 설정하고 기록 작업을 진행하였다.

#### ③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

사진가들이 기록한 2천여 점의 사진 중 대표성을 대표하는 200여점의 사진을 선정했으며, 편집위원들의 돋보이는 구성으로 만들어낸 사



〈그림 4〉 “원주... 길을 걷다”展 포스터(<http://cafe.naver.com/wj24.cafe>)

진집과 전시기획의 독창적 시도를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시각문화를 느낄 수 있다. 그 안에는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소중한 풍경과 사라지고 잊혀지는 삶과 사람의 모습이 빼곡하게 채워질 것이며 오랜 시간 기억의 증거로 가슴속에 담겨질 것이다.

프로젝트팀은 사진이라는 시각기호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라지는 우리의 도시, 지역의 사람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사진집과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의미를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3) 분석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상인)들의 사진촬영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접근을 위해 많은 만남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지역민의 이야기와 공간의 특징을 찾아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적 대상으로만 바라본 사라져가는 도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깨닫게 되

었다.

개인의 주관적 감성과 작업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재작업과 추가 작업을 해야 만하는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가능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에 충실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공간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 깊어지고 각자의 개인작업도 늘어남과 동시에 대상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진적 시각도 함께 변하고 있었다. 무엇을 찍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바로 그것이었다. 이는 도시아카이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진기록화 작업은 원주리는 공간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일상의 생활과 도시이미지와 브랜드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과거의 모습이 함께 기록으로 남겨져 과거의 원주의 모습 속에서 현재의 원주를 재생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원주의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동반하여 원주발전을 촉진하는 기록매체가 될 것이다. 또한 원주시, 원주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한 웹기반 통

합 원주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3.3 분석결과

이와 같이 살펴 본 서울, 부산, 원주의 사례를 통해 도시아카이브의 내용과 분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장소자원을 아카이브의 대상으로 삼고 기록하였다(서울과 부산). 도시민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장소들을 기록화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2) 사진이라는 기록물 매체를 활용한 아카이브로 실제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구축하였다(부산과 원주). 이는 곧 실제적 이미지의 중요성은 잘 나타나지만, 도시의 전통이나 관습 등의 역사성이 포함된 기록문화유산 등의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의 기록들을 연계하지 못하였다.

3) 아카이브 대상을 도시 행정의 구역별로 분류하고 이를 정리하였다(서울시). 이것은 아카이브 구축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효율적인 기록화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 현재 세 도시의 웹아카이브의 문제는 시청의 메인 홈페이지와 다른 관련 문화유산기관의 홈페이지가 아카이브적 측면에서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서울, 부산, 원주), 도시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한 웹기반 통합 도시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구축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의 도시아카이브는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도시아카이브의 구축 방향

도시를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화에는 기록화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잡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설문원 2010, 128).

국내에서도 최근 기록화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도시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지만, 단순히 도시경관과 도시 내 이미지 구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도시아카이브의 사례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아카이브 구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표 5〉 참조).

〈표 5〉 도시아카이브의 프로세스

구분	내용
기획	우선적인 아카이브 목표 및 주제 선정
수집	수집대상의 정확한 범위 설정
분류	수집대상의 요소식별
정리	체계적인 분류를 위한 행정구역별 수집
활용	구축된 아카이브의 지속적 보완과 활용

첫째, 해당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영역부터 기록화를 해야 한다. 그것은 도시의 브랜드화를 이끄는 주제가 될 것이며,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역사의 현장이나 문화재, 유명인물, 축제, 음식, 자연경관, 도시 내 건축물, 관광,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가 처해있는 상황과 가지고 있는 도시자원의 내용에 따라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도시는 고유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타 도



시에 비해 우위성 있는 부분을 전략화하여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둘째, 기록할 수집대상의 정확한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록의 목표와 정책을 분명히 설정하고, 도시 내 자원의 시간적인 범위와 공간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도시 아카이브의 구축은 아카이브가 어떤 목표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향후 수집되는 자료의 성격이나 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집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아카이브 작업 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도시 내 자원의 구성요소를 자연요소, 물리적인 요소와 비 물리적인 요소로 나누어 구분하고 분류하여 기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유형과 무형자원에 대한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각에 맞는 기록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시대 시민의 사고와 가치관을 알고 싶다면, 구술생애의 기록매체를 통해 기록화하여야 하며, 도시의 경관이나 건축물,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의 사진기술과 렌더링(rendering)작업 등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 행정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기록화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를 아울러 진행해 나간다. 이는 도시 내 자원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보완 및 아카이브의 활용이 필요하다. 해당 분야 주제의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며 보존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역사교육, 전시와 홍보, 학술자료 편찬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활

용, 축제나 관광과 같은 프로그램도 개발이 가능하다.

## 5. 결 론

도시 내 자원은 한 시대뿐 아니라 도시의 생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날까지 도시민의 정신과 문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임으로 도시 내 자원을 기록하는 것은 전통의 보존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도시아카이브 현황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과 부산은 장소별 갤러리와 도시기록자원을 아카이브 대상으로 삼고 기록하였다.

2) 부산과 원주는 사진이라는 기록물 매체를 활용한 아카이브로 실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구축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역사성이 포함된 기록문화유산 등의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의 기록들을 연계하지 못하였다.

3) 서울은 아카이브 대상을 도시 행정의 구역별로, 부산은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원주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4) 웹아카이브 측면에서 시청과 문화유산관련기관과의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시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한 웹기반 통합 도시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지자체는 구축된 도시아카이브를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축된 도시아카이브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 창출에 바로미터가 되는 즉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시민으로서 자긍심(自矜心)을 가지고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애郷심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특정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로 창출하는 자원으로 변화되는 이때에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이미지를 부각시켜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도시간의 경쟁력 강화에 도시아카이브를 활용함으로써 해당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아카이브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도시기록화 TF'팀을 구성한 후 해당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분야와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 영역부터 기록화를 해야 한다.

2) 기록할 수집대상의 정확한 범위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내 자원의 구

성요소를 구분하고 분류하여 기록화한다. 여기에서 도시의 역사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도시 행정구역별, 재개발대상지역별로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시의 재생아카이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 지속적인 보완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다양한 영역에서 아카이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시민들에게 아카이브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생활의 활용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

도시아카이브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할 설계도이며, 도시의 축적된 유산이 도시의 문화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도시 발전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미래의 도시들은 도시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개성 있고 매력 있는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시아카이브의 구축과 그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계기석 외. 2001. 도시정체성(Urban Identity)과 도시발전. 『도시정보』, 229: 3-15.
- [2] 권용우. 2012. 『도시의 이해』. 서울: (주)박영사.
- [3] 권재경, 최원수. 2012. 도시이미지 유형에 따른 도시브랜드 정체성 형성의 영향요인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0(4): 15-26.
- [4] 김한선. 2008. 『외래관광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의 도시관광요소와 도시이미지』.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 [5] 도시갤러리팀 큐레이터 이은지 인터뷰. [online]. [cited 2013.4.10].

- <<http://blog.naver.com/s6604/30091343572>>.
- [6] 마크 기로워드, 2009. 『도시와 인간-중세부터 현대까지 서양도시문화사』. 민유기 역. 책과함께.
- [7] 박선미, 2010. 『도시의 글로벌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아이덴티티 시각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 [8] 부산도시기록. [online]. [cited 2013.4.10].  
<<http://abcd.busan.go.kr/introduce/introduce.vm>>.
- [9]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online]. [cited 2013.4.10].  
<<http://www.citygalleryproject.org>>.
- [1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09. 『도시공간의 인문학적 모색』. 서울: 메이데이.
- [11] 서울특별시청. [online]. [cited 2013.4.10].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 [12]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13] 손장원, 2007. 도시정체성의 의미와 가치. 『도시문제』, 42(469): 12-19.
- [14] 원주시청. [online]. [cited 2013.4.10]. <<http://www.wonju.go.kr>>.
- [15] 원주의 북쪽. [online]. [cited 2013.4.10]. <<http://cafe.naver.com/wj24>>.
- [16] 유광흠, 오성훈, 조상규, 성은영, 2009.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경기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17] 유문무, 2004. 『지방화시대 도시정체성 정립에 관한연구』. [인천]: 인천학연구원보고서.
- [18] 윤옥경, 2011. 도시 브랜드 개발을 통한 도시 이미지 구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6): 726-737.
- [19] 이석환, 2001. 『부산의 도시정체성에 관한 연구』. [인천]: 부산시의회정책보고서.
- [20] 이희재, 2004. 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231-249.
- [21] 정달식, 2009. 『도시, 변혁을 꿈꾸다』. 부산: 산지니.
- [22] 최영조, 2012. 도시브랜드 심벌의 제작의도와 표현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34: 393-402.
- [23] 테오도르 폴 김, 2009.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서울: 시대와 창.
- [24] 辻村明, 1988. 都市の個性と文化. 『都市問題研究』, 40(2): 3-15.
- [25] Cox, Richard J. 2001.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of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 [26] Girouar, Mark. 1985. Cities and People: A Social and Architectural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 [27] Hayden, Dolores, 1988. "Placemaking, Preservation and Urban History."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41(3): 45-51.

[28] Linch, K. 1960. *The Image of City*. MIT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ye, Ki-Seok, et al. 2001. "Urban Identity and Urban Development." *Urban Information Service*, 229: 3-15.
- [2] Kwon, Yong-Woo. 2012. *Understanding the City*. Seoul: Parkyoungsa.
- [3] Kwon, Jae-Kyeong, & Choi, Won-Soo. 2012. "Empirical Study on Effective Factor of City Brand Identity Formation by City Image Type."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0(4): 15-26.
- [4] Kim, Han-Sun. 2008. *City tourism factors and city image that affects the satisfaction of foreign tourists*. M.A. thesis, Se Jong University.
- [5] Interview of City Gallery team curator Lee, Eun-Ji. [online]. [cited 2013.4.10]. <<http://blog.naver.com/s6604/30091343572>>.
- [6] Girouar, Mark. 2009. *Cities and People: Western City Cultural History of the Middle Ages to Today*. Trans. by Min You Gi. Seoul: Cum Libro.
- [7] Park, Sun-Mi. 2010. *The study on the analysis of city identity's visual elements for establishing global identity local governments*. M.A. thesis, Sang Myeong University.
- [8] Busan-City Document. [online]. [cited 2013.4.10]. <<http://abcd.busan.go.kr/introduce/introduce.vm>>.
- [9] Seoul City Gallery Project. [online]. [cited 2013.4.10]. <<http://www.citygalleryproject.org>>.
- [10] City Humanities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Seoul. 2009. *Humanities exploring the urban space*. Seoul: Meidei.
- [1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line]. [cited 2013.4.10].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 [12] Seol, Moon-Won. 2010.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Girokhakyeongu*, 26: 103-149.
- [13] Son, Jang-Won. 2007. "The meaning and value of urban identity." *Urban Affairs*, 42(469): 12-19.
- [14] Wonju City Hall. [online]. [cited 2013.4.10]. <<http://www.wonju.go.kr>>.
- [15] North of Wonju. [online]. [cited 2013.4.10]. <<http://cafe.naver.com/wj24>>.

- [16] Yoo, Gwang-Hum et al. 2009. *The Policy Strategy for Buil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rchives in Korea*. Gyeonggido: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 [17] Yoo, Moon-Moo. 2004.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ization Era Urban Identity*. [Incheon]: Incheon Studies Institute Report.
- [18] Yoon, Ok-Kyong. 2011. "A Study on the Process of Making City Image by Developing a New City Brand."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 17(6): 726-737.
- [19] Lee, Seok-Hwan. 2001. *A Study on the City Identity of Busan*. [Busan]: Busan Metropolitan Council Policy Report.
- [20] Lee, Hee-Jae. 2004. "The Efficient Archival Arrangement and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4): 231-249.
- [21] Jung, Dal-Sik. 2009. *Dosi, Byeonheokeul Kkumkkuda*. Busan: Sanjini.
- [22] Choi, Yung-Jo. 2012. "A Case Research on the Identity of expressions and Concepts of City Brand Symbol Logo Design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Design Forum*, 34: 393-402.
- [23] Kim, Theodore Paul. 2009. *Sagowa Jinrieseo Taeonaneun Dosi*. Seoul: Sidaewa Chang.